

현안리포트 05-047

최근 환율변동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본 환율 및 품목별 수출전망 -

2005.12

**kotra**

통상전략팀

## <요 약>

- 최근 미 달러화 및 일본 엔화 대비 원화강세 추세로 우리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 제기
  -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강세는 2005년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진행되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상당부분 감소
  - 그러나 엔화 대비 원화강세는 하락 폭이 크고 속도가 빨라서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에 타격 우려 점증
- 미국, 일본, 유럽, 아세안 등 주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재 원화강세 보다는 엔화약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일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들은 일본산 대비 가격경쟁력이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결제통화 다변화, 해외생산체제구축 등 다양한 환리스크 관리로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은 점점 작아지고 있음.
-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대체로 달러 당 원화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수출채산성이 나빠질 것으로 생각
  - 주요 품목별 적정환율은 자동차 1,050~1,150원, 기계 1,200~1,250원, 철강 1,100~1,200원, 전자 1,050~1,100원, 섬유 1,150~1,250원 등이라고 응답
- 그러나 우리 수출은 원화강세가 지속되어온 2004년과 2005년에도 호조를 지속하여, 환율변동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평가
  - 제품 및 기업의 브랜드 파워 강화 등 전략적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이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목 차>

I. 최근 환율동향 .....	1
1. 원·달러 및 원·엔 환율변동 추이 .....	1
2. 주요국 통화 환율변동 추이 .....	3
II. 환율변동에 대한 주요 시장별 영향 .....	4
1. 미국시장 .....	4
2. 일본시장 .....	9
3. 중국시장 .....	12
4. 유럽시장 .....	14
5. 아세안시장 .....	16
6. 중남미시장 .....	19
7. 중동시장 .....	20
8. 러시아시장 .....	22
9. 인도시장 .....	26
III. 전망 및 시사점 .....	28

## I. 최근 환율동향

### 1. 원·달러 및 원·엔 환율변동 추이

□ 최근 미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 대비 원화환율 하락 추세로 우리 수출에 대한 우려 제기

○ 우리 수출이 급증하면서 국내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원화 강세 현상 지속

<미 달러화 및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 변동 추이>

기 간	원/미달러	원/100엔
2003년 상반기	1,205.42	1,015.16
2003년 하반기	1,178.57	1,044.13
2004년 상반기	1,166.84	1,076.03
2004년 하반기	1,123.88	1,042.56
2005년 상반기	1,015.10	957.86
2005년 7월	1,037.44	927.21
2005년 8월	1,021.17	921.82
2005년 9월	1,029.33	927.11
2005년 10월	1,046.25	910.85
2005년 11월	1,041.43	880.09
2005년 12월6일	1,037.90	858.16

주 : 기간별 평균환율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달러화 대비 원화강세 추세는 지난 2005년 상반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상당부분 감소된 것으로 평가

- 반면, 일본 엔화 대비 원화강세는 하락 폭이 너무 크고 떨어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 제기
  - 엔화에 대한 원화강세가 이어지면서 엔화가치가 2004년말 대비 15% 이상 급락하고, 엔화 환율이 7년만의 최저치를 경신(2005년 12월)하는 등 엔화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 상승은 일본산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국내기업들의 생산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되나,
  - 반도체, 가전, 철강, 조선, 자동차 등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수출은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됨.
  - 특히, 급격한 환율변동은 해외시장에서 우리 수출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다대
-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우리 수출이 환율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환율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 2005년도에도 우리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경제를 견인
- 2006년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3,00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가 우리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방안 강구 필요

## 2. 주요국 통화 환율 변동 추이

### □ 주요국 통화별 미 달러화 대비 환율변동 추이

○ 올해 들어 주요국 통화는 미 달러화 대비 약세 추세

-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 달러화에 대해 완만한 약세 행진

<2005년도 주요국 통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변동 추세>

통화구분	연초환율	현재환율	변동률 (%)
일본엔화/달러	102.57 (1월4일)	121.29 (12월5일)	18.25
중국위안화/달러	8.2765 (1월2일)	8.0806 (12월5일)	-2.37
달러/유로	1.3632 (1월2일)	1.1767 (12월5일)	15.84
달러/영국파운드	1.88 (1월2일)	1.73 (12월5일)	-9.4
호주달러/달러	1.2480 (1월4일)	1.3408 (12월5일)	8.6
싱가포르달러/달러	1.6338 (1월1일)	1.6922 (12월2일)	3.57
러시아루블/달러	27.7487 (1월1일)	28.9646 (12월5일)	4.38
인도루피/달러	43.61 (1월3일)	46.18 (12월5일)	5.9
멕시코페소/달러	11.2183 (1월1일)	10.4558 (12월5일)	-6.8
브라질헤알/달러	2.62 (1월1일)	2.22 (12월5일)	-15.3
말린링깃/달러	3.80 (1월1일)	3.78 (12월2일)	-0.53
인니루피아/달러	9,314 (1월3일)	10,011 (12월5일)	7.5

○ 일본 엔화를 제외하면, 변동폭이 크지 않으나 원화가 달러화 대비 지속 강세를 보이는 추세와 상반되어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 단, 중국 위안화는 미국을 비롯한 교역상대국의 절상압력 등으로 소폭 강세로 진행 중

## Ⅱ. 환율변동에 대한 주요 시장별 영향

### 1. 미국시장

#### □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 미국 진출 우리기업들의 일반적 의견은 현재의 환율수준이 최상은 아니나,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
  - 그러나 원화강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미 수출환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제기
- 원화강세, 엔화약화 추세에 따른 미국 내 바이어들의 반응은 아직 크게 인지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등 대미 주력수출 품목 중 다수가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 보다는 브랜드 이미지나 품질이 경쟁력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환율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 생산성 향상 및 프로세서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 이외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향후 단순한 가격경쟁보다 품질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환율강세로 인한 영향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한 대미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함.

□ 현지진출 기업이 보는 적정환율 수준 (미 달러화 대비 원화기준)

품목군	적정환율	기대환율
반도체	1,100	1,080
컴퓨터	1,100	1,080
자동차부품	1,150	1,100~1,150
타이어	1,100	1,050~1,100
섬유	1,200~1,250	1,100
자동차	1,150	1,100~1,150
철강	1,150	1,100~1,150
휴대폰	1,150	1,100~1,150
석유화학	1,150~1,200	1,100~1,150
기계	1,200~1,250	1,200

1. 적정환율: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이익을 내면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환율 수준  
(수출이익과 수출물량 동시 달성 가능 환율)
2. 기대환율: 현재의 환율강세가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업계 수용 가능 환율 수준

- 자동차부품, 타이어 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환율 수준은 평균 950원 수준으로, 950원선까지 환율이 하락할 경우, 미국 영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
- 섬유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소폭의 환율변동은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

## □ 주요 품목별 영향

-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부 품목(자동차, 기계, 가전제품 등)의 경우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다소 받을 것으로 전망됨.

### ① 반도체

- 주력 수출품목인 DRAM 및 낸드 플래쉬메모리 제품은 휴대폰, MP3 등 소비자 가전제품 시장여건이 호조되어, 최근의 원화강세가 단기간 동안에 직접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원화강세와 동반해 나타나고 있는 엔화약세는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 보다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하 효과로 작용하여 국내 제품의 원가부담을 완화하면서 부정적인 요인을 상쇄할 전망

### ② 컴퓨터

-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생산체제의 본격화로 대미 직접수출이 매년 감소하는 바,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에 따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은 가격경쟁력보다는 새로운 수요기반 확보 및 제품 차별화 등의 비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③ 섬유류

- 일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폴리원단(카테고리 619) 제품은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의 영향으로 일본 제품과의 경쟁여건이 다소 불리해지고 있음.

### ④ 자동차

- 미국 및 일본상품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자동차의 경우 원화강세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품목 특성상 급격한 공급선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단기간 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기대

- 원화강세 속에서도 판매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지시장 판매가격 인상이 어려워 향후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채산성 악화 우려

### ⑤ 철강

- 미국 내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건설경기 붐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의 피해복구를 위한 철강수요는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단기간 내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송유 및 개스 운반용 파이프(OCTG) 등 특수목적 철강제품은 단기간 내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

- 제품생산을 위한 주요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강세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이 많음.
- 중국의 위안화가 추가로 평가 절상될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⑥ 기계류

- 일본과 주로 경쟁을 해야 하므로, 원화강세와 엔화약세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계 수출기업들이 가격 중심의 마케팅 보다는 기술과 고객지원 서비스 위주의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는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⑦ 자동차 부품

- 자동차 부품은 향후 1~2년분의 계약을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 납품하고 있는 제품들은 약 1,150원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순수하게 환율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계약 당시보다 약 10%가량 수익이 줄어들었으며,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950원까지 환율이 하락할 경우 초기 계약보다 약 17%이상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업계 관행 상, 원자재 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반영해주는 사례도 있으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 감소분은 전혀 고려사항이 되지 않음
- 다행히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일본 업체보다는 주로 미국 업체들과 경쟁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따른 피해 우려는 거의 없는 상황임

## ⑧ 타이어

- 현재 환율수준은 큰 영향이 없으나, 환율이 950원 정도까지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측
- 완성차-부품업체 관계는 종속적 성격이 큰 데 비해, 타이어 업체는 비교적 제품 가격 변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보다는 환율로 인한 압박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 일본시장

###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 일본 진출 기업들은 대부분 엔화로 결제를 하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흡수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엔 환율의 하락은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 일본시장에서 인정받은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제품별로 가격 교섭 횟수를 늘려나감으로써 바이어의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석유화학제품, 선박 등 달러베이스로 결제를 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상사별로 반응 및 대응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원·엔 환율 하락의 영향은 미미한 편임.

#### □ 주요 품목별 영향

- 일본기업과 경합하는 제품은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시장에서 엔화가 원·달러·위안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두 약세에 있기 때문에 한국제품이 시장에서 단기간에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은 적음.
- 주요 대일 수출 품목의 경우 가격경쟁을 넘어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해 일본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품목이 많아 시장환경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현재와 같은 수출 호조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① PC 및 가전

- PC는 일본 메이커와 외국산 메이커(델, 삼성 등)와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추세
  - 원화 강세가 수출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으로 기존의 가전제품 전문판매점에서 통신판매로의 유통채널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 가전제품 또한 일본 제품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 원화 강세는 국산 제품의 경쟁력 저하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 다분

## ② 타이어

- 현재 일본시장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타이어 제품은 품질면에서 일본 제품과 비교해 손색이 없어 다소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
- 현재 자동차용품 전문점 오토박스에서 팔리는 국내산 타이어 1개는 5,200엔으로 일본 메이커인 브리지스톤(9,500엔), 요코하마고무(8,500엔)와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이 높아 현재의 원화 수준에서는 가격전가가 가능할 전망.

## ③ 선박

- 일본 조선시장은 현재 호황이지만 경영환경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원화강세가 지속될 때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온 한국 기업들에 불리해질 전망

## ④ 철강

- 대일수출품목이 일본의 자동차·가전업계의 호황에 힘입어 고급강재가 중심이 되고 있어 환율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분석

## ⑤ 반도체

- 삼성전자와 도시바, 하이닉스가 일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원화강세는 대일 수출 반도체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약화 및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다대

### 3. 중국시장

#### □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 중국 진출 기업들은 수출 주도형, 내수 주도형, 수출-내수 균형 등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분류에 따라 환율변동에 대한 반응과 대응이 상이
  - 수출 주도의 업체의 경우, 원화 강세가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 업체는 가격 재검토나 수출 보류 등도 고려 중
  - 내수 주도형 업체는 위안화의 추가 평가절상이 계속될 경우,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나서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중국 내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수출-내수 균형 업체는 내수와 수출을 자체적으로 조절하면서 환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음

#### □ 현지진출 기업이 보는 적정환율 수준 (미 달러화 대비 원화기준)

품 목	적정환율	기대환율
산업기계	1,200	1,100
자동차	1,050	1,000~1,020
철강제품	1,200	1,000
석유화학제품	1,020	1,020
직물	1,100	1,050~1,070
섬유제품	1,050	1,010~1,020
무선통신기기	1,000	1,000
반도체	1,030	1,020
가전제품	1,050	1,000
자동차부품	1,200	1,100
플라스틱	1,030	1,030

□ 주요 품목별 영향

① 산업기계

- 이미 달러화로 책정된 가격 하에 중국 내 내수 판매를 실시하기 때문에 원화강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② 섬유

- 원화 강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원자재를 100%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적자의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③ 가전 및 무선통신기기

- 가전제품이나 무선통신기기 등 내수 영업을 주로 하는 업종은 원화 강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내수 업종의 경우, 원화 강세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수출 주도형 업종은 원화 강세로 인해 채산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원화 강세 요인 이외, 위안화의 평가절상 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유럽시장

##### □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 원가절감 노력, 수출단가 인상 검토, 신제품 개발 노력 등을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노력 지속

-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중동구 생산기지 이전 추진 중

○ 원화강세와 동반한 엔화약세가 수출경쟁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전자, 타이어 등 일본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품목에서는 비용 상승에 따라 이미 가격인상을 결정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 현지진출 기업이 보는 적정환율 수준 (유로화 대비 원화기준)

품 목	적정환율	기대환율
기계	1,250	1,300
자동차	1,200	1,250
전자	1,200	1,250
석유화학제품	1,250	1,300
항공	1,250	1,300
자동차부품	1,150~1,200	1,200~1,250
무선통신기기	1,200~1,250	1,250~1,300
타이어	1,300	1,350

□ 주요 품목별 영향

① 무선통신기기

- 휴대폰 등 브랜드 및 기업 인지도가 매우 강한 제품의 경우, 현재의 환율변동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

② 자동차부품

- 대부분 유로당 1,150원의 환율 범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현재의 환율변동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
- 단, 타이어 등 일본과의 경쟁품목은 원화강세로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제품가격 인상을 통보하였으며, 엔화강세에 따라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

③ 자동차

- 최근의 원화강세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엔화약세가 동시에 지속될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매출감소 및 현지 딜러들의 주문 축소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

④ 공작기계

- 원화강세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수출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기존 바이어들이 일본, 대만, 동구권 등지로의 납품선 변경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5. 아세안시장

### □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 최근에는 원화강세가 원만하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대체로 원화강세에 따른 영향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 새로 도입된 변동환율제하에서 현지화(RM)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지화 강세가 점차 심화될 전망이어서 원화강세의 영향을 상충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엔화약세의 지속으로 주요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제품 대비 상대적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

### □ 현지진출 기업이 보는 적정환율 수준 (미 달러화 대비 원화기준)

품 목	적정환율	기대환율
자동차	1,100	1,000~1,020
무선통신기기	1,050~1,100	1,000~1,050
전자	1,050~1,100	1,000~1,050
석유화학제품	1,050~1,100	1,010~1,020
철강	1,100	1,000
섬유	1,150	1,010

## □ 주요 품목별 영향

### ① 자동차

- 베트남, 싱가포르 등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판매 호조 예상
  -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산 및 유럽산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어 원화강세로 인한 경쟁악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
  - 베트남 시장에서는 원화강세를 미리 예상, 연초 기준 환율을 낮게 책정, 수출가격에 반영하여 현재 큰 부담은 없는 상황

### ② 무선통신기기 및 가전

- 휴대폰, MP3 등은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수출가격에 반영이 되지 못할 경우 수출채산성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
- TV, 에어컨 등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원화강세는 내수시장 소비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③ 철강

- 대부분의 결재가 달러화로 이루어지며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 부담을 바로 수출가격인상으로 연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채산성 악화가 예상된다.

- 엔화의 약세에 동반되어 경쟁제품인 일본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④ 석유화학

- 아직까지 원화강세로 인하여 수출선 변경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환율보다는 국제유가에 따른 가격 변동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최근 저가의 중국산 시장공략이 강화되는 가운데서 원화강세로 인하여 수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⑤ 섬유

- 한국산 직물은 가격경쟁력이 약해 중국, 대만 등지로 수입선을 전환 중에 있으며, 원화강세로 수출가격이 인상된다면 수입전환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⑥ 기계류

- 구입시점의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화강세로 인하여 수출가격 상승 폭이 크게 되면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6. 중남미시장

### □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등이 최근 강세를 띠고 있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에 매우 유리한 여건 전개
  - 대부분의 업계에서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 보다는 현지화 강세 추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전, 플랜트 등 대표업종에서도 현지화 강세에 따른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 철강은 현지 수요 감소로 매출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원화강세에 따른 원자재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

### □ 현지진출 기업이 보는 적정환율 수준 (미 달러화 대비 원화기준)

품 목	적정환율	기대환율
자동차부품	1,150	1,200
무선통신기기	1,100	1,150
전자	1,100	1,100
기계	1,110	1,150~1,050
타이어	1,100	1,100
섬유(원단)	1,100	1,100

### □ 주요 품목별 영향

- 중남미 시장에서는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 보다는 현지화 강세에 따른 여건변화가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 현지화 강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
-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로에서 직수출하는 비중이 큰 기계, 건설장비 등은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 상존
- 현지생산 비중이 높은 가전 등은 환율변동 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더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됨.

## 7. 중동시장

###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 연초 900원대 환율이 다소 진정되어 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 환율에 대하여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경우 상반기 원화강세에 따른 손실분을 수출가격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손실부분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태임.

### 현지진출 기업이 보는 적정환율 수준 (미 달러화 대비 원화기준)

품 목	적정환율	기대환율
자동차	1,050	1,100
무선통신기기	1,100	1,150
타이어	1,060	1,100
가전	1,100	1,150
섬유	1,100	1,200

□ 주요 품목별 영향

① 자동차

-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수출정책 수립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원화강세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에 반영을 시키고 있으나 일정 부분의 손실은 피하기 어려움.

- 1,000원대를 유지한다면 큰 부담은 없는 상황

② 선박

- 제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출대금을 보통 5회에 걸쳐 접수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원화 수익은 수출대금 접수시 환율에 큰 영향을 받음.

- 수출보험공사 환 변동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 시키고 있으며 조선업계 대부분이 계약시 현 환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수주하여 채산성 악화가 다소 우려됨

③ 타이어

- 환율인하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가격 하락으로 원화강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하고 있으며 유로화 수출비중이 커져 원화강세에 따른 기업 채산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④ 가전 및 무선통신기기

- 원화강세로 소득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000원대를 유지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⑤ 섬유제품

- 환율 변동보다는 유가 및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아울러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빠른 속도의 시장잠식으로 환율과는 관계없이 수출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8. 러시아시장

#### □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 2005년 상반기 원화강세를 경험하며, 전반적으로 대응책은 마련한 상황으로 환율에 대한 압박은 느끼고 있으나, 상반기와 같이 현지인원 감축, 활동비 감액 등 조치는 특별히 없는 상황임.
-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이던 2004년 및 2005년 상반기에는 결제통화를 유로화로 변경하는 등 결제통화 변경에 비중을 두었으나, 현재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1.2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하향된 상태로 결제화 변경으로 인한 혜택을 크게 보고는 있지 못한 상황임.

- K사는 2005년 1월부터 유로화로 결제화를 변경하였으며, H사는 5월부터 대 본사 결제는 유로화, 현지 판매는 달러화로 결제중. 현지판매의 경우 유로화로 결제를 하였으나, 달러화 강세에 따라 달러화로 변경한바 있음.
- 엔화약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으나 최근 현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및 가전업계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본산 제품의 엔화약세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인하 조치 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일본기업의 수익률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휴대폰 등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엔화약세에 따른 이익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전반적으로 상당수 현지 진출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1,000원~1,050선을 적정환율로 파악
  - 완제품 수입 비중이 높은 제품의 경우 1,000원대가 무너지면 마진 축소 및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950원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 현지진출 기업이 보는 적정환율 수준 (미 달러화 대비 원화기준)

품목	적정환율	기대환율
자동차	1,000	950~1,000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1,000	950~1,000
가전	1,020원	950~1,000원
철강	1,020~1,050원	950~1,000원
기타	1,020~1,050원	950~1,000원

## □ 주요 품목별 영향

- 자동차, 가전 등 일본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군의 경우 원화강세, 엔화약세가 이어질 경우 결국 일본기업과의 힘겨운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도요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감리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지 생산기반 확충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단순 환율 이외에 철강 등의 경우 중국기업이 저가로 러시아 시장에 침투하고 있어 원화강세에 가격인하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 ① 자동차

- 현재까지 엔화약세에 따른 가시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본기업의 수익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2006년 경쟁격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② 무선통신기기(휴대폰)

- 주요 수출기업들이 이미 유로화 결제를 하고 있어 오히려 달러화 대비 유로화 약세에 더 많은 관심

### ③ 가전

- L사의 경우 200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지공장을 건설중으로 환 리스크 부분은 현지 투자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S사의 경우 고가제품 위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원화강세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본 기업의 엔화약세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 수립에 고심하고 있음.

#### ④ 철강

- 건축자재용 칼라강판 등 일부 품목이 완제품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어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음.
- 특히 중국산 제품이 저가를 무기로 현지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바이어들부터 단가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단가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음.

#### ⑤ 기타

- 건설중장비를 주로 판매하는 H사의 경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자재를 공급받고 있어 환율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 5-15% 가격을 인상
  - 또한 현지 대규모 딜러와 거래시 반기 또는 연간으로 계약하고 있어 계약 갱신 시점에라도 원화강세가 진정되기를 희망

## 9. 인도시장

### □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반응

- 달러대비 원화 환율은 현재 1,035원 수준으로 금년초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며, 원화강세의 최고 시점인 5월초(990원선) 및 8월중(1,010원)에 비해서는 원화 강세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
- 다만 엔화는 연초의 105엔대에서 현재 120엔으로 하락하여 일본산과의 경쟁이 심한 품목에는 향후 상당한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
  -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기계류, 철강 등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산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우리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 현지진출 기업이 보는 적정환율 수준 (미 달러화 대비 원화기준)

품목	적정환율	기대환율
철강	1,100 이상	1,000
석유화학	1,100~1,150	1,000

### □ 주요 품목별 영향

- 우리 기업들은 현재의 1,040원 전후의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원화 강세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
  - 다만 금년 9월까지 달러당 43-44루피대에 머물던 인도 루피화가 10월이후 지속 약세를 보여 현재 46루피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수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엔화가 9월 이후 달러화에 대해 지속 약세를 보여 12월 6일 현재 달러당 121엔까지 하락하고 있어, 일본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

### ① 석유화학

- 일본 기업들이 중국 수요가 감소하자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다, 최근의 엔화 약세로 일본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우리 진출 업계의 경우 지난 10월초까지 호황을 맞았으나, 현재 환율로는 내년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입장

### ② 철강

- 일본산 자동차 강판, 전자제품용 강판 등이 공급되어 왔으나, 최근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수입되고 있는 품목 범위가 넓어지고 가격에도 상당히 경쟁적인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

### ③ 기계류

- 일본 제품과 우리 제품 간 경합이 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엔화 약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
  - 기계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기계류의 수출이 일본산과의 적정한 가격차를 최대 무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엔화 약세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

### Ⅲ. 전망 및 시사점

□ 2006년도에도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는 지속될 전망

○ 내년 상반기 중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쌍둥이 적자 악화 등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 제기

-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 기조 속에서도 강세를 유지해 왔던 원화의 경우, 달러화 약세 기조에서 강세 유지 예상
- 원화강세는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외환 공급우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바, 내년도 수출 역시 호조세를 이어갈 경우 원화강세 지속 요인이 계속 상존

<2006년 주요 환율 전망(기간평균)>

	2004년	2005년			2006년	'06년절상률 ('05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원/달러	1,143.7	1,105	1,037	1,026	1,014	1.2%
엔/달러	108.1	106	114	110	115	-4.3%
원/100엔	1,058	958	908	933	882	5.8%
달러/유로	1,244	1.28	1.20	1.24	1.20	-3.2%
위안/달러	8.28	8.28	8.09	8.19	7.65	7.0%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내년 상반기 중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엔 환율 상승 전망

- 엔/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보다 더욱 크게 하락하는 것에 기인

<일본 주요 기관의 2006년 엔화 환율 전망>

(단위 : 엔/달러)

구 분	2005년 말	2006년 상반기
도쿄미쓰비시은행	119.0~122.0	117.0~124.0
미쓰비시정책경제연구센터	121.0~123.0	120.0~124.0
미쓰이스미토모은행	120.0~123.0	118.0~122.0
일본종합연구소	122.0~123.0	117.0~122.0

□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현재 원화강세 보다는 엔화약세가 수출경쟁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파악

-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
- 일본으로부터 부품 및 소재 수입 시 원가 부담

- 그러나 원화강세는 2004년도와는 달리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상당 부분 흡수된 것으로 분석

□ 환율변동 등 외부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 감소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브랜드 파워, 전략적 해외마케팅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에 의존한 수출구조에서 상당부분 탈피

- 원화강세가 지속된 2004년과 2005년의 수출이 매우 호조

- 기업 차원의 환리스크 관리 등 글로벌 기업경영 기법 확대

- 과학적 환 헤징 전략 도입, 결제통화 다변화, 해외생산체제 강화 등을 통한 환리스크 관리 확산

- 외부환경 변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수출 구조 강화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등에 편중된 수출품목 구조 개선
    -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핵심부품 수출 확대로 수출품목의 안정성 확보
    - 해외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과 경합하는 품목의 경우, 가격 이외의 품질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 차별화 구사
  - 제품과 기업의 브랜드 파워 구축을 위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활동 강구
    - 환율 등 외부환경 요인에 따른 가격변동에도 소비자의 구매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